투어 번호
LKWZK3SV7C

낙원 주변 트레일 (7일)

7일 · 6박 | 운전기사 겸 가이드 동반 프라이빗 투어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이 체험 소개

이 7일 투어는 스리랑카의 문화삼각지대와 언덕 위의 수도 캔디, 그리고 남서쪽 해안을 민간 차량과 운전 가이드를 통해 연결합니다. 담불라의 동굴 사원, 폴로나루와와 시기리야의 고대 수도, 미네리야에서의 야생동물 사파리, 캔디 사원과 정원, 그리고 거북이 보존 활동, 강 사파리, 역사적인 요새 도시 갈레를 거쳐 벤토타의 해변에서 마무리됩니다.

여행객들은 스리랑카의 고고학과 종교 역사, 그리고 야생동물과 해안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으며, 내륙의 긴 관광 일정 후에는 더욱 여유로운 해안 구간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향신료 정원, 공예 공방, 전통 문화 공연을 감상할 수 있으며, 코끼리, 거북이, 강의 야생동물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습니다.

여정은 콜롬보 공항에서 출발하여 문화삼각지대를 거쳐 캔디에 도달한 후 벤토타로 내려가며, 공항으로 돌아오는 전 구간에서 운전 가이드가 관광지 간의 이동을 담당합니다.



일별 여행 일정

Day 1 공항 → 담불라

콜롬보 공항에 도착하면 전용 기사 겸 가이드가 마중을 나와 담불라로 이동하며, 오후에는 석굴 사원 단지를 둘러봅니다.



담불라 석굴 사원

이 석굴 사원 단지는 기원전 1세기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며, 황금 동굴 사원, 신왕의 동굴, 대왕의 동굴, 그레이트 뉴 수도원 등 다섯 개의 주요 동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에는 부처의 일생을 그린 고대 벽화와 수백 개의 불상 및 여러 신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동굴 단지 바로 바깥에는 거대한 황금 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Lankapic · CC BY 2.5

Day 2 담불라 → 폴론나루와 → 민네리야 → 담불라

스리랑카 중세 수도의 유적과 야생 코끼리를 찾아가는 지프 사파리를 함께 즐긴 뒤 담불라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폴론나루와

스리랑카의 두 번째 고대 수도로, 10세기부터 13세기까지 번영을 누렸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를 걸으며 갈 비하라, 와타다게, 연꽃 목욕탕, 랑카틸라카 사원, 그리고 이 도시의 황금기로 기억되는 파라크라마바후 왕의 동상 등을 둘러봅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민네리야 국립공원 지프 사파리

민네리야 국립공원을 세 시간 동안 지프로 둘러보며 관목지, 숲, 초원 등 다양한 서식지에서 코끼리는 물론 여러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만날 기회를 가집니다. 5월부터 10월 사이에는 150마리 이상의 코끼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그레이트 엘리펀트 개더링'으로 유명합니다.

Day 3 담불라 → 시기리야 → 마탈레 → 캔디

오전에는 시기리야 바위 요새를 오르고, 캔디로 가는 길에 마탈레의 향신료 농원에 들르며, 저녁에는 공예품 관람과 전통 무용 공연을 감상합니다.



시기리야 바위 요새

5세기 카샤파 왕이 다스렸던 이 바위 요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단부에 있는 사자 발 모양의 입구 때문에 '사자 바위'라고도 불립니다. 오르는 길에는 색이 바래지 않은 고대 벽화를 지나게 되며, 계단식 정원과 지금도 작동하는 저수조는 초기 스리랑카의 수리 공학 기술을 보여줍니다.

Wrobell · CC BY-SA 3.0



마탈레 향신료 농원

마탈레 향신료 투어는 스리랑카 향신료 산업의 중심지인 마탈레의 향신료·약초 농원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수, 고추, 계피, 카다멈, 육두구 등 작물의 용도와 아유르베다 의학에 대해 배우며, 향기로운 열대 나무 그늘이 드리운 농원을 둘러봅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캔디 공예품

캔디에서는 보석 세공, 목공예, 바틱 작업 등 현지 공예를 살펴보는 체험 투어가 진행됩니다.



캔디 전통 문화 공연

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공연에서는 전통 북 반주에 맞춰 캔디 전통 무용수들이 선보이는 캔디 전통 무용과 음악, 불 춤과 검무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Arian Zwegers · CC BY 2.0

Day 4 캔디 → 페라데니야 → 캔디

캔디 주변의 사원을 둘러보는 하루를 보낸 뒤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을 방문하고, 캔디 호수와 시내를 산책합니다.



엠베케 사원

정교한 목조 조각으로 유명한 사원입니다.

Cherubino · CC BY-SA 3.0



가달라데니야 사원

이 역사적인 사원은 뛰어난 그림과 조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랑카틸라카 사원

당대 기준으로 건축적으로 매우 앞선 사원이었습니다.

BluesyPete · CC BY-SA 3.0



데갈도루와 석굴 사원

이 석굴 사원의 내벽은 정성스럽게 복원된 그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A.Savin · FAL



페라데니야 왕립 식물원

19세기 초에 조성된 이 식물원에는 난초, 향신료, 약용 식물을 포함해 4,000종 이상의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볼거리로는 캐논볼 나무, 현수교, 생울타리 미로, 그리고 정원 길을 따라 늘어선 커다란 그늘나무들이 있습니다.

Bernard Gagnon · CC BY-SA 3.0



캔디 호수와 시내

하루의 마지막은 캔디 호수를 걸으며 주변 시내를 둘러보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Ji-Elle · CC BY-SA 3.0

Day 5 캔디 → 코스고다 → 벤토타

해안으로 이동하는 길에 코스고다의 거북이 부화장에 들른 뒤, 벤토타에 도착해 투숙하며 해변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코스고다 거북이 부화장

스리랑카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이 부화장은 이 지역 해변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 바다거북 다섯 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북이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부화 전까지 알을 보호하여 생존율을 높이며, 방문객들은 새끼 거북이를 보고 만지고 먹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 중인 부상당한 성체 거북이도 볼 수 있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벤토타 해변

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해변 중 하나인 벤토타에서는 햇살과 부드러운 모래,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길 수 있으며, 해 질 녘에는 해안에서 거북이가 알을 낳는 모습을 볼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해변을 따라 제트스키, 윈드서핑 등 다양한 수상 스포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Vincent van Zeijst · CC BY-SA 3.0

Day 6 벤토타 → 발라피티야 → 갈레 → 벤토타

마두 강에서의 보트 사파리와 갈레 고도(古都) 요새 관광을 함께 즐긴 뒤 벤토타로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마두 강 보트 사파리

마두 강의 맹그로브 생태계를 따라 두 시간 동안 보트를 타고 이동하며, 일광욕을 즐기는 악어와 물왕도마뱀, 계피 재배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이 사는 작은 섬, 그리고 자연 서식지에서 지내는 물새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는 물고기 마사지 체험을 위한 정차도 포함됩니다.

SUPindia · CC BY-SA 4.0



갈레 요새

과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의 거점이었던 갈레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요새 중 하나를 품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요새 내 박물관과 등대를 둘러보고, 네덜란드 시대의 이름이 남아 있는 자갈길을 따라 산책합니다.

Rovin Shanila · CC BY-SA 4.0

Day 7 벤토타 → 공항

아침 식사 후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이동하여 귀국 항공편에 탑승합니다.

포함 사항

포함

- Transport in a Private Vehicle, Fuel, Parking & Highway tolls.
- Service of English-Speaking Chauffeur Guide.
- All prevailing taxes and service charges.

미포함

- Hotel Accommodation and Meals.
- Entrance fees to the respective sites.
- Chauffeur Guide's Accommodation.
- Expenses of personal nature.
- Visa and Related Expenses.
- Tips & Portages.